

화순군, 하반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박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전담여행사와 손잡고 화순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속도를 낸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 관광객 유치에 위해 올해 선정된 화순로컬여행 전담여행사와 함께 액티비티와 힐링, 미식, 축제를 결합한 신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주요 골자는 관광객이 화순에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여행의 저변과 동선을 확장하는 것이다.

현재 전담여행사들은 KTX를 활용한 당일치기 여행을 비롯해 ‘1박 2일 자연과 미식으로 채우는 화순 힐링 여행’, 치유관광 상품 ‘안녕, 앵두야’ 등 화순의 자연과 음식, 치유 콘텐츠를 결합한 상품을

전담여행사와 신규 자원 발굴...주요 축제 연계

액티비티·힐링·미식 결합 다양한 여행상품 준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운영 경험과 관광객 반응을 바탕으로 여행 취향과 연령층을 고려한 새로운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파크골프를 즐긴 뒤 스파와 힐링을 체험하고 다음 날 화순적벽을 둘러보는 1박 2일 상품과 아름다운 자연 거길을 활용한 자전거 여행상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상품 개발에 앞서 재단과 전담여행사는 8월 중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직접 찾아 관광객의

이동 동선과 체류시간, 콘텐츠 간 연계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현장답사를 거쳐 개발된 상품은 준비 상황에 따라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화순적벽문화축제와 화순운문문화축제, 화순 고인돌 가을꽃축제,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등 주요 축제와 신규 관광상품을 연계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군은 축제와 관광자원을 하나의 여행 동선으로 연결해 축제만 보고 돌아가는

관광에서 벗어나 숙박과 음식, 체험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담여행사와 함께 화순을 직접 걷고, 보고, 즐기며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여행상품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액티비티와 힐링, 축제가 어우러진 여행을 통해 관광객들이 화순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이 화순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과 음식, 체험을 즐기는 것이 이번 상품 개발의 중요한 목표”라며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늘려 관광이 숙박·외식·체험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화순파크골프장.

함평, 전시·놀이시설 나빛파크 내일 개장

예약제·최대 80명 수용...미디어아트 등 체험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새롭게 선보이는 생태교육 기반 체험형 복합 놀이시설 ‘나빛파크’가 15일 개장한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나빛파크는 실외 놀이시설과 실내 체험 공간을 결합한 복합형 전시·놀이시설이다. 어린이가 신체활동과 다양한 디지털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아외에는 구름다리와 집라인 등을 갖춘 놀이터가 마련돼 있다. 2층 구조의 실내 공간에서는 정글짐, 트램펄린, 슬라이드, 볼풀장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나비·곤충 3차원 관찰, 직접 그린 곤충 그림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라이브 스케치’, 홀로그램 등 다양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한다. 함평의 숲과 습지의 사계절을 담은 미디어아트도 함께 선보인다.

나빛파크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개인 관람객

은 나빛파크 홈페이지와 연결된 온라인 예약사이트(<https://home-ticket.co.kr/navitpark>)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단체 관람객은 20명 이상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전화(061-320-2255~6)로만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에는 휴관한다. 1일 3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당 이용 시간은 1시간 30분. 최대 수용 인원은 80명이다.

다만, 축제 기간에는 운영 회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추후 나빛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남오 군수는 “나빛파크는 어린이가 놀이와 학습, 디지털 체험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생태교육 기반 복합 체험시설”이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윤희 기자 6263739@gwangnam.co.kr



나주, 다회용기 사용...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장례식장 2개소 무료지원...전문업체 세척·재공급

조문객 반응도 긍정적...기관·단체 등 참여 줄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줄이고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업무협약을 맺은 관내 2개 장례식장인 빛가람종합병원장례식장과 애향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상주에 다회용기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한 용기는 전문 세척업체가 수거해 세척한 뒤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주와 장례식장의 이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위생적인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다회용기를 이용한 조문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일회용품보다 식기와 음식이 한층 정갈하게 느껴지고, 유가족이 조문객을 대접하는 정성과 마음이 더 잘 전달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는 기관이나 기업, 단체, 상조회사 등이 상조물품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다회용기 사용이 확산하는 데 한계도 있다. 상주 입



나주시가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회용기 사용 확산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나주시가 지원하는 다회용기에 음식이 담긴 모습.

장에서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일회용품을 편의상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관내 기관·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존 일회용품 중심의 상조물품 지원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시공무원노동조합도 기존 일회용품 중심의 상조물품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등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에 동참하고 있다.

시는 기관과 기업, 단체 등이 상조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는 유지하면서 다회용기 사용에 참여할 경우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을 크게 줄이고 지역사회 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장례식장과 지역사회,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이어가며 ‘일회용품 줄이고 정성은 더하는 장례문화’를 생활 속 친환경 실천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조문객을 대하는 정성과 장례의 품격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기관과 기업, 단체, 상조회사에서도 상조물품 지원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도 다회용기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장성,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내달 17일까지...참가자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나섰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9월 17일까지 임신부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보건소 2층 건강증진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2주에서 32주 사이의 임신부를 위한 태교 교실과 맞춤 신체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모유수유 자세와 산전 및 산후 마사지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 관리법, 이유식 만드는 법도 가르쳐 준다.

임신부들이 많이 겪는 허리, 골반 통증을 완화해 주는 운동법과 출산에 필요한 호흡법, 근력 운동법도 익힐 수 있다.

여기에 군은 이달 14일까지 하반기 ‘스마트 맘케어’ 참여자도 모집한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임신부 등 20명을 선정해 스마트 위치,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등을 지급한다. 문의는 보건소 건강정책팀(061-390-8363)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한중 군수는 “이번 임신부 건강교실 프로그램이 예비 엄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따뜻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제1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사회 안전 대축전

시상식
2026년 9월 9일(수) 오후 2시
광남일보 1층 아카데미홀

【공모기간】 2026년 6월 22일(월)~8월5일(수) 18시까지

【심사일정】 2026년 8월 11일(화)~8월13일(목)

【결과발표】 2026년 8월 19일(수) 광남일보 홈페이지 및 신문지면

■ 교통안전·사회안전 부문

【공모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관·단체 및 기업, 일반 시민 누구나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gnilbo2@daum.net)

■ 그림·포스터 부문

【공모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중·고교생

【공모주제】 교통안전·사회안전 관련주제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우편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4층 사업국)

【제출작품】 초등학교생(그림/8절지), 중·고등학교생(포스터/8절지)

문의 광남일보사업국(☎062-370-7090)

주최 **광남일보**

후원

주관 **광남일보**